

한국 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및 역사 인식

2017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 개시 67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 국민의 운명을 보면 때때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때로는 그 나라 국민의 미래까지 큰 영향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드난 멘데레스 정부에서 1950년 7월 25일에 유엔에 남한을 도와 주기 위해 병력 파견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터키군의 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터키는 한국으로 여단규모의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때 총 5090명의 병사로 구성된 여단병력이 참전해야 했던 이유, 이의 필요성 또는 전쟁 개시 2년 후 완료된 NATO 가입을 위해 892명의 전사자와 2068명의 부상자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시대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고 각 시대는 그 당시의 현실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및 터키의 참전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이를 제대로 기념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후 오늘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적 서양 정치 질서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것으로 인정받은 한국 전쟁에서 터키 참전여단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쟁터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적 정치 질서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군사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의 정권은 군과의 관계 속에서 67년 전 터키군이 터키 국회의 동의도 없이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의 결단력으로 수천 킬로미터 머나먼 나라에서 터키의 이익과 및 세계 평화 기여를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이 벌써 잊혀진 것 같습니다.

1950년 10월 맥아더원수가 지휘한 유엔군 및 미국 제8군은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군우리 인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때 터키군 제1여단와 제241연대의 장교, 부사관, 병 모두는 영웅답게 싸워 이들을 구해내고 중공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역사적 과정을 바꾼 이 전투에서 수백 명의 터키 병사가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군이 군우리(1950년 11월 26일 - 1950년 12월 6일)와 금양장리(1951년 1월 25일-27일) 전투에서의 영웅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 많이 배운 사람들조차도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었다면 그것은 역사를 배신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외국 군대로서는 처음으로 터키군 제1여단에게 이 전투에서 승리를 기려 “명예부대훈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훈장은 전쟁

당시에 영웅적이었던 터키군 241 연대에 미군 극동 최고 사령관이 공식 기념식을 통해 수여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2007년 6월 7일 국가장례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린 한국전쟁시 제 1 터키 여단의 소위이자 군우리 전투에서 제 241 연대기를 구한 영웅인 고 예비역대령 “지한 콤바사르”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잊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있고 전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터키의 의사 결정자 및 지도자들은 터키 국민들이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터키 국민이 한국 전쟁과 메흐멧치(터키 병사를 일컫는 고유어/터키군)의 영웅적인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역사 인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2017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다른 견해와 판단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우리와 소중한 헌신과 영웅적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세속주의 터키 공화국의 기본 목적을 없앨 수 없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우리 나라 국내 이슈에 속하지 않은 주제가 2017년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 년의 우리 민족 국가 역사적 기억력 결핍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하며 꼭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에 대한 저희 판단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저는 의식의 중요성을 현재의 전문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잘 알고 있는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 전문의로서 저희 모두가 이 민족의 개개인으로서 역사적 사건을 의식하고 현실 판단력을 키우면서 건강한 정신 상태로 개개인이 역사를 골고루 접하고 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미래 국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전쟁 때 터키 여단은 물론이고 터키군 소속의 장교, 부사관, 병들과 함께 유엔군이 발휘한 용감한 정신은 오늘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 기반이 공산주의와 맞서 승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않고 공통 역사 인식을 간직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3 년에 걸친 (1950 년-1953 년) 이 전쟁 첫 해 중공군에 포위되어 괴멸직전의 미국 제 8 군을 오직 제 1 터키 여단이 막아냈습니다. 군우리 및

금양장리 전투에서 보여준 터키 여단의 용감한 행적이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전세계 군 역사 속 명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미국 정부와 지도자들, 미국 국민에 의해 기억될 것, 이 국가들 간의 공통 역사 인식으로 간직될 것, 한국전쟁 터키 참전 용사들, 이들의 친척, 터키군, 터키 국민 및 터키 공화국 모든 영역에서 충실히 실행할 것을 터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유엔 총회 회원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터키 공화국을 위해 현재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 공통 역사 인식을 통해 고려하리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개념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 상승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례가 이 같은 개념의 지표입니다. 전세계 곳곳에 어려움과 부정이 계속되는 반면에 본보기로 할 선진현대화 사례가 됩니다. 교육, 과학, 혁신을 기반으로 오늘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터키군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앙카라학교를 개교하여 전쟁으로 지친 남한의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의 80% 이상이 대학 졸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반세기 전 전쟁에서 벗어난 나라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의 회원국 193 개의 국가 중 과학, 혁신적 기술 생산과 사용 측면에서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이 1950년대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국가들을 넘어 세계 3위에 오른 것이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 같이 나라의 선진, 발전, 현대화는 우리나라와 저에게도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950년 - 2017년 사이에 67년 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보낸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의 답에 대해 국민, 사회와 사회 지도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비판도 필요합니다. 경제, 교육, 기술, 외교통상, 과학-연구, 생산 관점에서 우리 나라가 단기간에 유엔 회원국 중 일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처럼 어떻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과 같은 주요 주제는 모든 관련자와 지도층에 의해 시급히 연구·계획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터키 국민과 터키군을 위해 승리를 거두어 저희에게 훌륭한 역사를 선물해주시고 저희 가슴을 뿌듯 하게 해주신 터키군은 물론이고 한국 전쟁 때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참전 용사가 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해 존중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9일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

하칸 콤바사르 올림